

Crafts

공예

2009년 10월 모든 것이 바뀌었다. 회 센터, 이불, 한복, 유니폼, 주방용품 등을 중심으로 교류하던 '그들'만의 리그가 그들 더하기 '우리'들의 아지트로 거듭나게 됐다. 1백여 개가 넘는 점포 중 비어 있는 57개를 우리의 아지트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했다. 주제와 형식은 예술가, 창작, 작업공간으로 칭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담을 지는 아이디어가 절실했다.

동대문과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지리적 접근성은 패션문화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좋은 입지였다. 지하는 소음을 동반한 공구가 숨 쉴 수 있는 곳이었다. 낮은 층고와 6평 내외로 구획된 개별공간으로 이뤄진 공간적 특성은 장르를 결정짓기 쉽게 했다.

소형 위주의 작업장이 필요한 예술가의 수요는 생각보다 많았다. 공예+디자인 특성화 공방이 조성돼 상인들과 공생을 하게 된 '신당창작아케이드(이하 신당)'가 탄생되기까지의 배경 설명이 약간 길어졌다. '신당'은 보는 사람에 따라 표정이 달라진 시장으로 탈바꿈하는데 예술 공간이 한 몫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갤러리가 있는 시장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달라진 시장의 이미지가 아니라, 작업공간이 절실했던 '우리'의 절박함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실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저렴한 작업실은 단기 임대 특성이 강하다. 예술가의 입장에서선 당장 기회가 주

시장으로 간 공예예술 날갯짓 하는 창작인

글 나희영 신당창작아케이드 총괄매니저(hare0321@sfac.or.kr)
사진 송은지

어졌다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 탓에 불안정한 작업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신당'은 예술가들의 불안한 작업환경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장기형 레지던시 모델 구축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매해 공모를 통해 입주작가를 선정하는데 9기를 맞고 있는 현재 대부분의 작가가 최소 2년 이상을 머무르고 있다. 어떤 작가는 연속 6기 동안 머물기도 했다.

'마중물'로서의 창작지원

'신당'은 예술창작에 필요한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창작지원 시스템을 체계화해 지원하고 있다.

신당 입주작가의 다수가 매해 연장 입주에 사활을 거는 것은 오로지 저렴한 작업공간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지하라 음습할 수 있지만 가게의 사소한 움직임과 시끌벅적한 공존이 문화 현장으로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시장 특유의 생기와 기쁨은 부담스러운 상인들의 오지랖이 때론 작가들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한다. 다양한 오브제를 근간으로 작업하는 특성상 손쉽게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주변 환경과 위치 또한 매력 요소다.

공간 지원에는 여러 겹의 지원 형태가 있다. 단편적인 사례로 '2017년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최초예술지원'을 들 수 있다. 39세 이하 또는 데뷔 10년 이하 예술인으로 공예(금속, 도자, 섬유, 기타 등)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서울중앙시장 신당지하쇼핑센터 내 57개의 빈 점포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공예전문 창작공간이다. 2009년 서울시 컬처노믹스 전략에 따라 도심 유휴시설을 활용해 조성된 창작공간으로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입주작가는 일정 기간 동안 창작공간에 머물면서 작업을 펼쳐게 된다. 예술가에게는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민들에게는 축제를 통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 거점형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작업을 하는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200만 원의 창작활동비를 지원한다. 동시에 '신당' 기획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전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2018년 2월 현재 개관 9년차인 '신당'은 35개 공방에 38명의 9기 입주 작가로 만실이다. 그 중 2017년 청년예술인 최초예술지원에 선정된 작가 5명이 9기로 입주했다. 금속작업을 하는 J작가의 경우 '신당'의 7기 입주에 도전해서 실패한 전력이 있었지만 작년 최초예술지원 창작활동비로 작업에 열중할 수 있었고 '신당'이 제공한 기획전시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간 특성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덕분에 9기 입주 선정에 주효한 포트폴리오 제작이 용이했다고 털어놓았다.

목공작업을 하는 S작가는 창작활동 지원비로 국내 공신력 있는 국제아트페어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아시아권 단기 국제 레지던시에 선정됐다. 작년 최초예술지원 선정을 시발점으로 단기 국제 레지던시 입성, 신

당 9기 입주 등 줄줄이 이어지는 좋은 기회에 놀라고 있다고 겸손을 표했지만 이는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다. 체계적으로 설계된 '신당'의 지원 시스템을 청년작가들이 이미 체감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뜻이다.

일상과 예술을 넘나드는 문화 플랫폼

영국 런던 여행 중 영화 '노팅힐'의 책방을 찾았을 때 우



66

소형 작업장이 필요한 예술가의
수요는 생각보다 많다.
공예작가들과 시장 상인들이
공생을 하게 된 '신당창작아케이드'
탄생에는 생각보다 많은 이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필요했다.

99



는 편견이 사라졌다. 시장 환경에서의 예술성을
굳이 런던에서 깨달음은 편협한 시각 때문이었
음을 반성했다. 현대 사회의 인식은 고급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싸다는 개념보다는 예술적 가치
에 주목한다.

서울 황학동 중앙시장에는 지상에만 500개
의 점포가 있다. 점포에 종사하는 상인의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지상 상가의 쇠락이
지하에 영향을 끼쳤고, 덕분에 빈 공간을 점유할 수 있
었다. 지상의 활기를 지하에 유입해 상권의 부활을 주도
함은 예술가의 몫이었다.

'신당'에서 기획해 꽤 유명세를 탄 '황학동 별곡'은
2012년 예술적 기반 위에 발화된 시장축제였다. 다양한
상인 커뮤니티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예술적 자원과 노
력이 필요했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행사는 결속
력이 전제돼야 하기에 개별 구성원을 보듬는 사전 교감

연히 포토벨로 마켓을 구경하게 됐다. 고가의 골동품 솜
부터 즉석 생과일주스 트럭까지 골목 구석구석 존재감
이 빛나는 풍경이었다. 당시 리어카에서 저렴하게 구매
한 정물 페인팅 소품은 현재 주방 벽면의 표정을 담당
하고 있다. 신기하게도 리어카와 연계된 골목 안에는 제
법 큰 상점에서 고가의 작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상점을
구경하면서 이태원에 줄 지어진 고급스러운 빈티지 솜
이 떠올랐다. 거리에서 유통되는 시장 제품은 질이 낮다

활동을 예술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 진행했다. 상인들
의 사연을 들어주고 합창을 유도하며 일터의 간판을 함
께 만들어 가는 등 캠페인을 조직화하는데 더 많은 무
게중심을 실었다. 등공예 입주작가 주도 하에 황학동 노
래교실 회원을 대상으로 12주간 한지 프로그램을 단계
별로 진행했고 시장 천장을 등 장식으로 채운 후 점등
식과 더불어 합창 공연을 올렸다. 상인 100인의 사연이
담긴 캘리그래피 작품 '100인의 이야기'는 상인의 일상
을 예술 활동으로 연결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지상과 지하를 넘나드는 다양한 예술 활동은 '머뭇'
보다는 '통행'으로서의 문화 전달, 확장, 기존 인프라와
의 공존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공방을 거점으로 이뤄지는 작품창작 외 상인과 연대



상인 100인의 사연이 담긴 캘리그래피 작품
'100인의 이야기'는 상인의 일상을 예술 활동으로
연결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사진제공: 신당창작아케이드]

하면서 폭넓은 문화 창작 작업으로 예술 활동의 반경을
넓히고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면 동대문-신당-청계천을
아우르는 문화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공간이 브랜드이자 마케팅

'신당'은 공간 자체가 문화 인프라다. 좋은 공간이 곧 마케팅으로 작동하면 입주 작가들은 공간에 대한 신뢰감, 열
정, 만족감 등을 느끼며 긍정적인 경험들을 통해 브랜딩
을 구축한다. 진정한 브랜딩은 창작자원의 제도적 시스템
과 창작자의 내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신당 입주작가들은 일차적으로 개별 작업 및 공동작
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기자재를 제공받는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CoP(Communities of Practice)
는 도예, 금속, 목공, 섬유, 상품디자인 등 각기 다른 장
르와 협업을 구축해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자율성에 바탕을 두지만 주제 선정과 관련해 당해 이슈
를 내걸기도 한다. 외부 전문가의 심사와 멘토로 예산
을 지원하고 CoP 활동의 결과물은 전시의 형태로 구현
할 수 있는 매뉴얼 복이나 매거진으로 발간할 수도 있
다. 2018년의 이슈는 가을에 열릴 '황학동 별곡'에서 상
인 예술가로서의 전방에 대한 기획을 제안하는 것을 구
상 중이다.

아트 매니지먼트를 비롯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아카데미도 개방한다. 퇴실 입주작가 중 소셜 벤처로 성
공한 사람을 초빙해 특강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포트
폴리오 및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기능 워크숍도 열린
다. 그 외 저작권 교육, 작업을 하는데 심리적인 지지 기
반을 위한 힐링 콘텐츠 등도 업데이트 중이다.

내부의 단단한 자생력을 바탕으로 외부 페어의 참가
및 기획전시도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 '신당'의 공간을
전략적으로 만들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모색해주
며 브랜드 가치 구축에 참여시킴으로써 소속감을 유발
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공간이 브랜드가 되면 '신당'
의 가치는 더 커지고 더 빛을 발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는 그 공간에서 진행되는 창작 프로모션이 문화가 되는
것이다. ①

INTERVIEW

김충재 작가

“도와주고 양보하는 문화에서 힘 얻어”

글 신다혜 객원기자(dhshin131@techm.kr)

신당창작아케이드의 8, 9기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충재 작가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루이스 설리반의 명제에 의문을 던진다. 앓는 목적보다 관계에 주목하는 의자, 기하학적 우산꽃이 등 형태의 미(美)를 극대화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김 작가를 만났다.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 8기 작가로 입주해 올해 9기로 연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입주 작가모집에 지원했는데 운 좋게 연결 됐죠. 아케이드에 있는 동안 일본 자동차 회사 도요타와 함께 조명 프로젝트 열었고 책상, 의자 같은 가구, 그림 작업 및 판화 등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작가마다 다르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개의치 않는 편이어서 아케이드 공간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특히 작업을 하다보면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작가들끼리 협업하고 기술 조언도 주고받을 수 있었죠. 정보 공유도 많이 하고 일단 같이 작업하는 게 재밌습니다. 방송에도 선보였던 기안84(웹툰 작가)의 우기명 조각상을 만들었을 때는 입주해 있는 의상작가분이 옷을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정부기관 지원이나 활용했던 제도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아트센터나비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창익인재동반사업 프로젝트에 멘티로 참여했습니다. 활동하면서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포트폴리오



를 준비하는 등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당시 대학원도 같이 다니면서 해외전시도 나가고 꾸준히 역량을 쌓았죠. 앞으로도 더 많은 창작인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품에 대한 방향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영감을 얻는지 궁금합니다.

회화적 요소와 실용성, 그 교집합 내에서 장르나 소재를 자유롭게 활용해 작업하고 있어요. 특히 형태가 기능을 따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의자나 책상 등 대부분의 제품이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하지만 그 법칙을 벗어나는 제품들도 많아요. 하이힐이 신발의 기능적 요소보다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춘 것 처럼요. 이런 제품들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면서 형태에 중점을 둔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영감은 여행을 통해서도 얻고 일상에서 관찰을 많이 하

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건축물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보러 다니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건축가 프랭크 게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이비통 파운데이션을 봤을 땐 정말 감탄했죠. 건축물 하나에 모든 양식이 담겨있는 것과 그걸 구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감을 주는 장소들이 많아요. 그 중 동대문을 좋아하는데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찾는 재미가 있죠. 특히 흥인지문은 건축적으로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계속 봐도 질리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신당창작아케이드가 속한 황학동도 익숙한 듯 의외성이 주는 재미가 있죠. 한번은 엄청 큰 기계를 봤는데 그 기계를 사용하는 분이 감성적인 면이 있었나 봐요. 에메랄드그린으로 칠하고 예쁜 화분을 하나 올려놨는데 군데군데 녹이 슬어있는 게 멋있더라고요. 그런 의외성이 기억에 남아요.

평소 관찰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한창 의자를 만들 때는 사람들이 앓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아이, 노인, 남자, 여자 등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있는지를 살폈죠. 2016년에 만든 ‘무심한 듯 다정한 연인을 위한 의자’라는 작품이 그 관찰의 결과물이예요. 여자끼리, 남자

끼리, 남녀가 각각 어떻게 같이 앉아있는지 살피다가 연인이 앉아있는 모습이 재밌고 로맨틱해 보여서 작품에 담아냈죠.

기업 프로젝트가 눈에 띄는데요.

혼자 작품을 만들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코치(COACH) 향수 아트워크, 도요타 조명 프로젝트 등 기업과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했어요. 지난 1월에는 롯데 측의 제안을 받아 이동현 그래픽 디자이너와 함께 2인전을 열기도 했어요. 기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 작품을 만들 때와 크게 차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기업에서 협업을 요청할 때는 제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일 테니까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들이 기업과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업에서 젊고 감각적인 새로운 동력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더 진정성을 찾다보니 아예 직접적으로 디자이너, 작가, 아티스트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아티스트 입장에서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겨난 셈이죠.

창작인들의 공정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제도나 시스템도 중요하죠. 결국은 해당 구성원들의 각자의 몫 아닐까요. 지난 2월에 전시한 타이틀도 ‘벡터로부터(From vector)’였는데 이처럼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신당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역량을 빨리 키워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양보해야겠죠. 저만 이런 좋은 혜택을 독점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올해 계획이 궁금합니다.

하반기 런던에서 열리는 디자인 페스티벌 ‘디자인 정션(Design Junction)’ 출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다보면 먼 훗날에는 필립스타이나 자하 하디드와 같이 제 이름을 딴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